



아쉬운 北漢山 史蹟保護

權 孝 燮

史蹟은 우리 歷史上 남아있는 사건의 자취이며 祖上의 卍요 文化遺産이다. 南漢山과 대칭되는 北漢山은 白雲台, 仁壽峰, 國望峰세 봉우리가 삼각모양이라 三角山·華山·負兒岳이라 불려지기도 했다. 깎아지른듯한 이 봉우리들은 오르긴 어렵지만 특히 주봉인 白雲台(836m) 정상에 오르면 四方백리반경이 두루 조망되며 서쪽은 江華, 永宗 등 西海島嶼까지 볼 수 있는 天惠의 展望台라 하겠다. 신라 眞興王 巡狩碑(史蹟 228호·'75년 국립박물관이관·假碑代置)가 있는 비봉꼭지에서 부터 僧加寺, 津寬寺, 文殊寺 등의 유서깊은 寺刹이 30여개나 돼 한때 山中僧國을 이룬 적도 있다. 1천 1백여년전 신라말엽때 道詵國師가 창건한 道詵寺, 中宗 17년(1522년) 信月禪師가 짓고 조선왕가귀인의 참배가 많아 「궁궐」이라 불려졌었다는 華溪寺, 신라 善德女王 8년(639년) 海浩祖師가 王命을 받고 창건한 望月寺는 道峰山의 寺刹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크며 老松이 울창하고 展望이 좋아 옛부터 望月10景이라 불리던 곳이다. 여기서 慶州를 향해 신라의 융성을 빌었다해서 望月寺라 했다고 전해지며 현존 본당건물은 정조 4년(1780년)에 재건되고 현재의 망월사 편액도 當時 중국사절 袁世凱의 글씨라 한다. 중흥사 東南 太古台에 자리잡은 太古寺는 1341년 중흥사 부속암자로 普愚大師에의 해 창건된 것인데 6.25때 소실되고 대웅전만 남았으며 대웅전 옆에 있는 寶物 제611호 圓證國師塔碑가 유명하다. 普愚는 高麗공민왕, 禹王을 보필한 國師이며 太古는 그의 號. 圓證은 보우대사의 祖師名이다. 고려말기의 文豪 목은 이색(李穡)의 碑文이 적힌 높이 2.25m, 너비 1.05m의 부도비로 고려 우왕11년(1385년)에 세워졌는데 龜趺 위에 碑身을 세우고 臺石을 덮은 모양이다. 뒷면에 적힌 麗末제신이름 가운데 判三事 李成桂를 비롯 林堅味·李仁任·廉興邦·李穡 등 고려중신의 이름들이 있다. 李成桂

(李太祖)가 조선을 건국하기 7년전의 일이다. 太古寺는 北漢山研究에 소중한 문헌인 木板本의 北漢誌原典(정신문화연구원 보관)도 소장하고 있으며 숙종 37년(1711년) 총장 8km의 北漢山城(史蹟 162號)이 축성된후 山城안에 주둔했던 승병 400여명을 총괄한 승군사령부(8도 총섭)였다 한다. 이 부근에서 梵語가 적힌 기와장을 발견했다는 글과 古蹟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비단 北漢山の 史蹟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펴볼 때 오늘날까지의 史蹟이나 文化財保護는 이름뿐이다. 來年 1月 1日에 신설되는 文化部에 미리 한마디 해두고 싶다. 文公部시절의 文化財관리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만 이관해놓고 그것만으로 보호책임을 다한 것처럼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一例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한지 2년동안 문공부나 北漢山의 文化財보호 수입 행정부처인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관할 시·군에서 허물어져가는 輔國門 등 城門이나 城址의 保護를 위해 公團에다 協助요청 한번 한적도 없고 文公部주무과에선 되려 保護를 自願해오면 검토하겠다는 태도이니 한심한 일이다. 文化財가 많은 공원의 경우 입장료의 몇감절이나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태도 사찰의 화재예방책이나 국보 등의 도난방책 등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천여년전의 유적들을 앙상한 기둥이나 벽채로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로마」나 역사적 인물의 생가를 보존하는 등 유럽 여러나라들의 史蹟관리를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일기 좋고 살기 좋은 우리가 史蹟 발굴과 보존에 힘을 기울인다면 후손들에게 정신문화유산을 남기게 되고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自然公園 保護運動은 公園內 史蹟保護運動도 함께 해야 옳을 것이다.

[筆者：大韓山岳聯서울特別市聯盟會長·前國會議員·本會理事]